

불교경제학이 아담 스미스 이래의 '자유주의 경제학'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경제와 마음의 자유, 돈 벌이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차이는 명백히 나타난다. 서구의 자유는 기독교 사상 위에서 '~로의 자유' 즉, '~하고 싶은 자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칸트는 인간이 선(善)을 행하는 것도 악(惡)을 행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 속에서 선을 선택함으로써만이 그 행위는 상한(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불교의 자유는 '자유재제(自由在在)'라는 속어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아무것도 얽매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하이에크처럼 케인즈도 시장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시했다. 봉건적인 권력 혹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확보한 언론의 자유, 시장의 자유, 정치의 자유는 바로 근대시민의 소중한 성취물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유에는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그것이 서구윤리의 근본이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경제적 자유도 또 하나의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유이다...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와 자력으로는 불행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경제의 현실 앞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투자로서 시장의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업을 해소하고 불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개입으로부터의 해방을 시장자유주의 본질로 하는 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케인즈로서는 부득이한 편의적 조치였을지도 모르겠으나,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사대였다...

스미스가 중시했던 '값싸고 작은 정부'에 대해 케인즈는 '큰 정부'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케인즈의

자유방임 상태의 욕망추구 바로 잡아야

오바마 대통령 '미국경제 파탄은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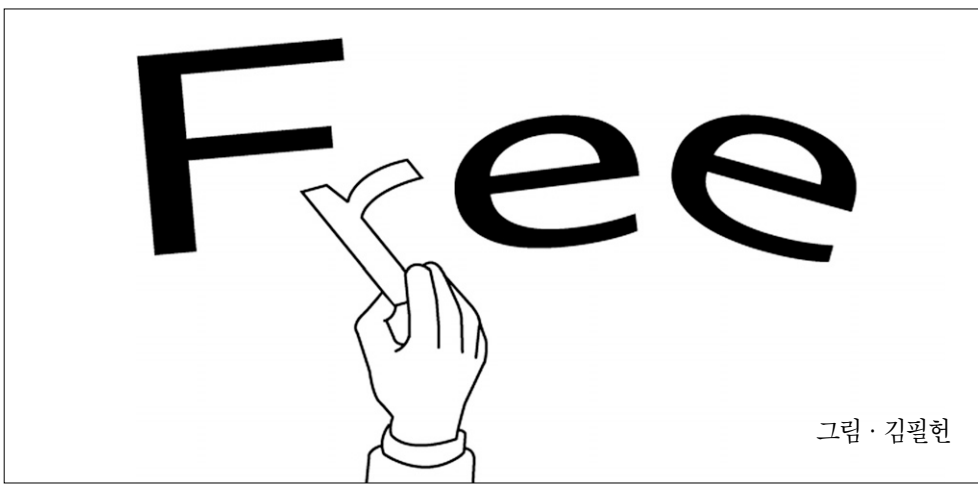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자유에 대한 우려는 다른 차원에 있었다. 자기의 이익을 제멋대로 추구해도 생산에 관여하는 자유경쟁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생산에서 떨어져 나와 돈 그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케인즈는 문제로 여겼던 것이다...

불교경제학은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진전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케인즈와 상통하는 우려를 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버블(거품)'이라 불렀던 주식, 주택, 토지, 자산투자를 비롯한 대부분이 투기바람이었다. 특히 1990년

대 이후 미국에서는 금융과 IT가 결합된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금융상품이 나타났다. 대부분 싼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몇 배로 팽창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경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을 자행대로 한 회사탐취(take over)가 상투화되고 내부정보의 누설에 의한 주식의 불법 이득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은행·증권업계가 더욱 자유로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행한 상호거래의 결과, 신용 제일로 통했던 은행도 주식의 투기적 공세를 체질화하게 됐다...

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 것이다. 시장의 자유방임상태에서 돈에 광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찍이 케인즈의 우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과거 자유무역에 선도한 것이 초국적 산업 자본이었으나 21세기의 글로벌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오늘날의 금융자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입을 늘리는 고전적인 대부자본의 수준을 넘어 금융파생상품의 단순한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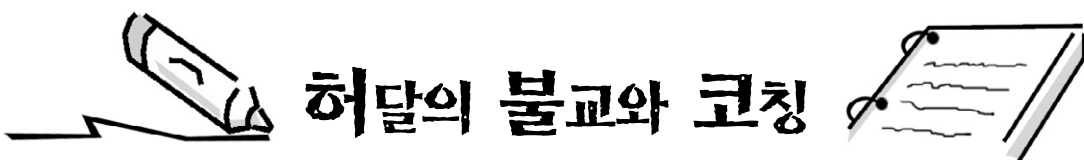
2008년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고수익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서슴지 않는 미국 금융자본의 도덕불감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경제의 파탄을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한 것은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방치한 미국정부 관료들을 겨냥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위기의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수준의 공적자금을 사회복지와 시장경제에 투입하고 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970년대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케인즈는 죽었다'고 했지만, 그 근본이론은 사라지지 않고 확실하게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케인즈의 우려와 불교경제학의 우려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결코 무관치 않는 것이다.

불교적 자유를 기업경영으로 체현한 어느 기업인이 사랑한 말- '군자는 재(財)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를 취함에 도(道)가 있다'는 도(道)야말로 불교경제학 그 자체의 논리인 것이다.

■ 인종대 경제학과 교수

34 사명서 쓰기



1999년 당시 SK 아카데미의 교수직을 맡고 있던 나는 리더십 강화를 신실하기 위해 한국리더십센터가 실시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리더십 워크숍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 속 진여(眞如)에 대한 기도'라는 부제를 붙여 기도문(禱文)의 자기사명서(Personal Mission Statement)라는 것을 하나 써 가졌다...

지난주에는 모 회사의 신입사원 20명과 함께 '새내기 리더십과 코칭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직장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걸음마 경영인들에게 일과 삶에 대한 소중한 일깨움을 주기 위해 이 칼럼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랜디 포시의 '마지막 수업', 아빈저 연구소의 '리더십과 자기 기만' 등을 사명서 쓰기와 함께 짜 넣어 기획했다...

적지 않은 배움을 얻게 됐다. 자기사명서를 쓰는 방법으로는 코비 박사의 정통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한 후 역할에 따라 관계자에게 어떤 전사를 받도록 자신을 꾸어주 나가지 않고 이로부터 삶의 원

오(誤) 모 군은 연구직으로 선발된 신입사원이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 속에 투영해 보고 매 황에 적절한 이미지 자료까지 링크 삽입해 다음과 같은 자기사명서를 썼다.

누가 요즘 젊은이들을 샤오황띠라고 폄하하였던가?

직과 자신의 헌장(憲章)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과의 만능시대라 웬만한 신입사원 지망생들은 취업준비학원 등을 통해 입사 시험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자기사명서 작성은 선행학습 경험 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도 듣는 이도 모두 감동하는 멋진 사명서들이 많이 나왔다. 누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기주의적이며 자기만 아는 퇴짜라진 샤오황띠(小皇帝)라고 폄하하였던가?

하나, 가족은 집이 아니라 축복이다. 둘, 모든 대륙에 축적을 남기다. 셋, 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받다. 넷, 건강한 남편, 아빠가 되다. 다섯, 나이 50에 청바지를 입다. 여섯,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다.

이와 같은 사고의 축약은 가상(假想)의 팔순 잔치라는 삶을 축하하는 시집에 도달한 미래의 오 군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다했다는 찬사 받고 싶은가' 하는 자기성찰을 시도함으로써 얻어진 결정이었다. 이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어머니: 다음 생애에서도 내가 내 아이를 기를 바란다. 너는 아빠와 같이 든든했으며, 때로는 애인처럼 따뜻한 남자였단다. 아내: 지금까지 나와 같이 항상, 나란히 걸어왔고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어. 아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아빠, 존경합니다. 삶을 즐기라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빠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장/공장장: 정말 열정적인 직원이었어. 현장을 뛰어다니는 자네는 공장 점퍼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친구: 힘이 들 때마다, 너랑 같이 마신 술이 가장 달았다. 그리고 고 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멋진 놀이야.

그러고 보니 첫 직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했을 무렵 미래 희망은 거무튀튀한 얼굴에 작업복과 헬멧이 멋지게 어울리는 공장장이 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화공, 기계, 전기 엔지니어가 아니라 정유공장 엔지니어이다"라고 훈시하던 당시 미국인 공장장의 모습을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머리 속 어디엔가 각인되어 있었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level (기본과정, 중급과정, 작법반, 신행과정, 특수작법) and Content (사물, 대령관육, 요잡바라,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1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2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3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4 사찰·포교원 등 복지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Requirement (모집과정, 교육학반, 입학자격, 제출서류, 교육기간, 교육장소) and Details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출강반, 통신반,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불학연구원과정 = 5년,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팩스·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